진우 스님 향한 기대감…“불교적 가치로 사회변화”

10월 5일 취임법회 축사로 본 각계 당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에 공식취임한 진우 스님을 향해 불교계 안팎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진우 스님이 이번 총무원장 당선과정에서 보여준 화합의 기치를 기반으로, 종도들의 원력을 결집해 불교중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또 정관계 등 교계 외부에서는 자비와 화합, 상생 등 불교적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해 국민들의 마음을 널리 치유하고 소외된 약자와 함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10월 5일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은 하나같이 축사를 통해 37대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각 조직과 단체를 대표해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 진우 스님을 향한 다양한 요청과 당부를 전해온 것. 이는 향후 4년 동안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을 이끌 진우 스님이, 불교중흥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란 기대감에 기인한다. 취임법회 축사를 토대로 각계 기대와 요청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0월 5일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학산 대원 대종사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어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청정성 · 사회기여”

교계 “종도 화합으로 역량결집 · 위상고취”

정계 “국민 마음 치유 · 약자 보듬는 불교”

사회적 갈등 · 분쟁 해소 위한 역할 기대


정문 스님 (중앙종회의장)


무원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이홍정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어 성파 대종사는 “종단 내 갈등을 참회와 포용으로 섭수하고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법도대로 종단을 운영하며, 종도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종단으로 그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모습은 만 중생의 복전이 되며 불교중흥을 이루어 내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제17대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 고 선언한 진우 스님은 이미 취임 전부터 전 종도의 합의추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에, 조계종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를 전했다.

정문 스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17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불교가 나라의 위기와 민족의 고통을 극복하는데 앞장섰고 정신과 문화를 계도하며 그 전통을 계승해 왔음에도,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제 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에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만이, 한국불교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처럼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내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미 교육원장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요직에서 성과를 이루어내셨던 만큼, 불교중흥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전진해 달라. 종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불교중흥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여 종단을 대표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진우 스님의 취임이 한국불교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했다.

진우 스님에 대해 “일찍이 불문에 귀의해 수승한 원력으로 교학과 수선의 본분에 매진했고 중요한 종무 소임도 두루 역임하는 등 시대를 이끄는 불교계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아 왔다”고 평한 스님은 “진우 스님의 이사원융한 혜안과 덕성으로 온 국민의 화합을 선도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가는 길을 밝혀 한국불교 발전의 중추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혜와 자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웃종교계의 기대감도 높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는 진우 스님에게 주어진 4년 임기가 불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발원하면서, 특히 “만물의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라는 ‘공동의 집’ 을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37대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고조되는 시기, 불교계가 이례적인 화합으로 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한 모습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치인들은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는 과정 그 자체로 부처님 가르침인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로 사회에 울림을 전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깊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나라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오신 수행과 원력, 화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진우 스님이 강조하신 불교중흥의 말씀은 불교가 오랜세월 실천해 온 역사와 알맥상통한다”며 “그 크신 자비행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처음으로 경선 없이 총무원장에 추대된 만큼, 그 지혜와 원력(願力)으로 불교계가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며 “높은 수행력과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신뢰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에 “지속되는 코로나, 고금리 · 고물가와 전쟁까지 우리 국민의 삶이 힘겹다”며 “동체대비(同體大悲)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음의 종교인 불교계가 앞장서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자의원으로서 자긍심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 회장은 “그간 종단의 대소사를 맡아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주신 진우 스님이 이번에는 대승적 추대를 통해 총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다”며 “1994년 총무원장 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추대되신 총무원장이기에 불교계의 화합과 변화에 큰 역할 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포교 여건을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중흥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소중한 불교문화재의 계승보전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정각회장으로서 불교계와의 소통 가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각 당을 대표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남다른 기대와 다짐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진우 스님이 당선과정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만으로도, 조만간 진우스님께서 제시하셨던 ‘사회화평’과 ‘불교중흥’이란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며 “국민의힘 또한 자신을 끝없이 비워 차별과 분별을 넘어 이타적 보살의 길을 갔던 문수보살의 삶과 원력을 따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대표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사회 곳곳에 더 넓고 깊이 전해지길 기원한다”며 “코로나팬데믹,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